

공학계열 인원 늘어나고 인문사회·예체능 줄어든다

신설단과 대학 정원 및 이동계획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제출한 프라임사업 계획안에 따라 각 단과대학은 2017년부터 대규모 정원이동을 앞두고 있다. 프라임사업이란 사회수요가 많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원하고, 사회수요가 적은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미래융합공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을 신설해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을 개편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4월 중순 교육부의 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1위로 선정된다면 연간 최대 300억 원, 2위부터 9위까지는 연간 150억 원을 3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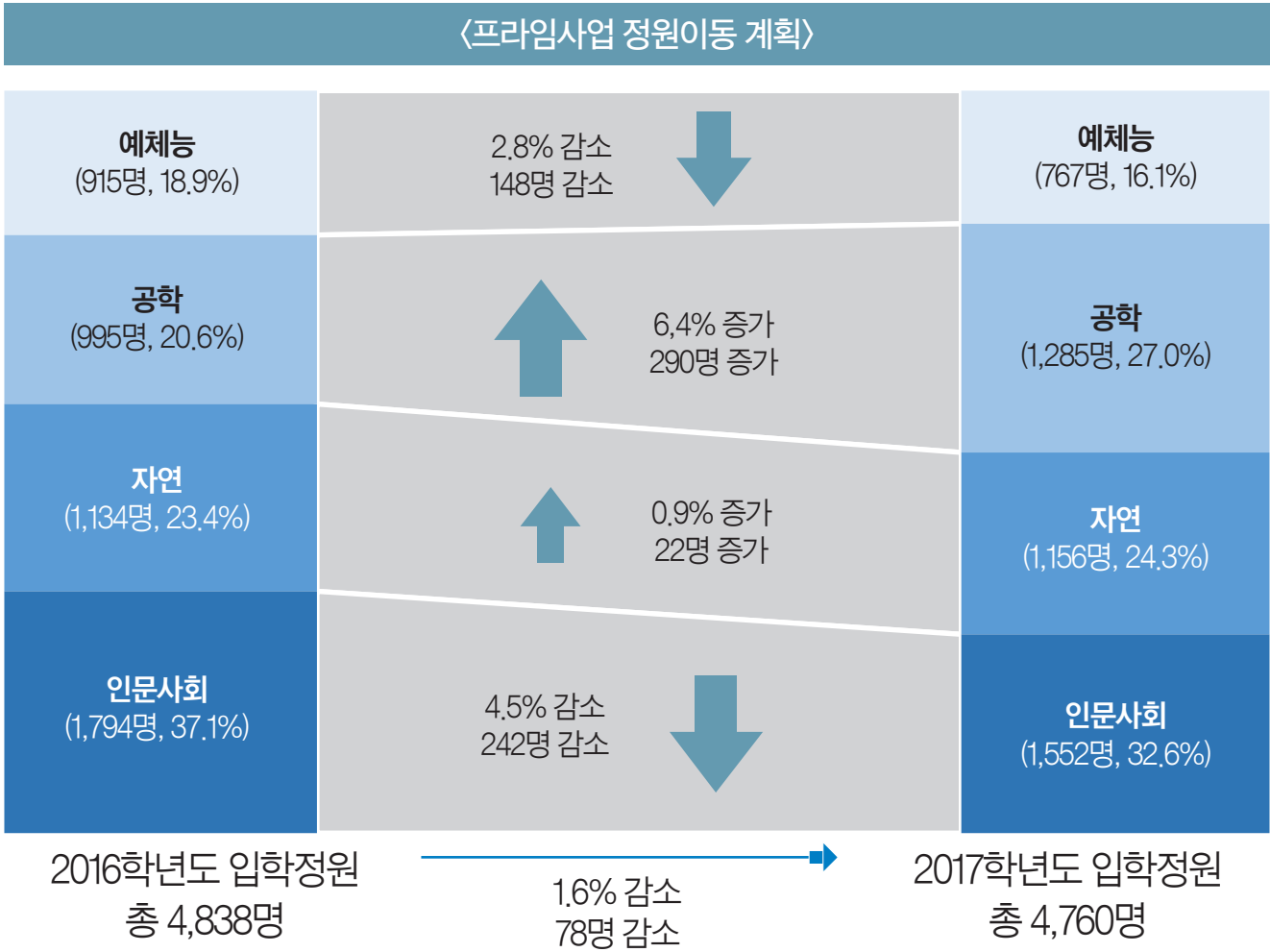
내년부터 계열별 정원 이동

공학계열 정원 290명 ↑

계열별 인원 변화만 따져보면, 공학계열 정원은 2016년 995명에서 2017년 1,285명으로 기존보다 287명, 비율로는 6.4% 증가한다. 자연계열 정원은 같은 기간 1,134명에서 1,156명으로 22명 늘어나며, 의예과와 치의예과 정원이 포함되었다. 반면, 예체능 단과대 정원은 915명에서 767명으로 148명, 인문사회 계열은 1,794명에서 1,552명으로 242명 감소한다. 총 정원은 4,838명에서 4,760명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각각 39명씩 감소한다. 학문분야 간 정원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의 변동은 크지 않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융합공학대학과 바이오융합대학의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인 미래융합공학대학에는 5개의 학과가 신설되고 전자정보대학 소속이었던 컴퓨터공학과가 이동한다. 기존 컴퓨터공학과는 7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며, 신설학과 입학정원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60명, 융합전자공학과 57명,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과 40명, 융합기계시스템공학과가 57명이고, 데이터과학과(명칭 논의 중)는 85명이다.

자연계열인 국제캠 바이오융합대학은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한다. 국제캠 생명과학대학이 바이오융합대학으로



개편되며, 의생명과학과 65명, 그린바이오공학과 60명, 식품생명공학과 47명, 바이오헬스산업학과에 60명이 배정된다.

신설되는 데이터과학과(명칭 논의 중)와 바이오헬스산업학과는 각각 국제캠 미래융합공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소속이

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캠에 위치해 해당학과 정원 83명과 60명은 서울캠 정원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생명과학대학 졸업자는 모두 이학사였지만, 바이오융합대학으로 개편될 경우 식품생명공학과 졸업자는 공학사가 되고 나머지 학과의 졸업자

는 기존과 같이 이학사로 유지된다.

6개 학과 신설, 5개 학과 개편

총 입학정원은 감소

공학계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조정을 위해 타 학과에서는 입학정원이 감소된다. 2016년 대비 2017년 입학정원을 보면, 서울캠은 프라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줄어든다.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는 정원을 유지하고, 의예과 치의예과가 각각 33명, 24명 증가한다. 이과대학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프라임사업 명목으로 27명 늘어난 것 이외에 지리학과가 2명, 정치외교학과가 2명, 사학과가 1명 증원될 뿐, 나머지 모든 학과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9명까지 감소한다. 경영학과, 자율전공학과가 38명, 39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고, Hospitality경영학부, 경제학과, 영어학부, 기악과, 무역학과, 관광학부,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가 11~17명 단위로 인원이 조정된다. 앞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학과는 1명에서 8명까지 입학정원이 감소한다.

특히 자율전공학과는 2016년 104명의 정원이 2017년 65명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영학과 역시 38명이 줄어들어 233명에서 195명으로 감소한다. 경영학과의 감소분이 16%인 것에 비해 자율전공학과는 무려 37.5%에 이른다.

공학계열 제외 대부분 학과 정원 감소

자율전공학과 가장 많은 39명 감소

국제캠 또한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신설학과 이외에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조정된다. 2016년 2,421명에서 2017년 2,382명으로 39명 줄어들고, 신설 단과대에 배정될 미래융합공학대학 242명, 바이오융합대학 17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15% 선을 맞춰 정원이 감축된다. 단, 일부 비이공계 단과대학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정원 감축이 예정된 바 있다.

미래정책원 측은 정원이 조정되는 학과를 위한 대책으로 소수 정원 학과의 전공과목 폐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인원 감축에 대해 자율예산 배정 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일정 안내

구분	내용	일정
내국인 대상 신(편)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4.11(월) 10:00 ~ 2016.04.20(수)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6.05.21(토) 10:00
	합격자 발표	2016.06.17(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 신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3.28(월) ~ 2016.04.29(금)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합격자 발표	2016.06.10(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 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